

리치캣의 '블로그 놀이'

-매월 1,000달러는 덤-

586세대 'N잡러' 시리즈

무료배포용



2022년 3월 12일

모재생

리치캣 티스토리

무료버전. 마음껏 온라인 공유가능.

시작하는 글

586 세대는 386 세대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

과거 컴퓨터 CPU 성능에 따라서 386 컴퓨터, 486 컴퓨터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다던 586 컴퓨터로 진화해 왔는데...

이때 386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었다.

1990년대 후반, IMF 시대에 만들어진 말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세대'를 지칭했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세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이다.

참고로 리치켓은 전형적인 586세대 막내이다.(89학번이어야 했으나, 재수해서 90학번)

이 글은 주변의 586세대들과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속에서 586세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중 하나를 다룬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던 엇그제도 586세대 선배 두분이 리치켓을 만나러 오셨다.

새로운 사업아이템인데...마케팅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렇다.

유럽에서는 은퇴하고 터키 안탈리아 바닷가에서 로마유적을 구경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미국에서는 은퇴하기 전부터 세계일주 크루즈선을 예약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586세대... '근로의 의무'에 충실하고 '휴식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개미라고 표현해도 무방해보인다.

자세히 보자면 리치켓의 초중고 동창, 대학동기, 선후배 등 50여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자기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연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도전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느날... 언제까지 근면성실한 산업사회 마인드로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개개인 각자의 아름다운 삶, 즐거웠던 삶 그리고 어려웠던 삶 등을 누가 알아줄 것이면 누가 인정해 줄 것이며 누가 기록해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위인전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잊혀질 것 같은 사람들로 보였다. 물론 리치켓 스스로도 그렇다.

그래서 수십년간 늘 메모수첩에 메모하던 것을...인터넷이라는 기술적도구를 활용하면 나를 기억하는 사회적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티스토리라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물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다음카페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카페는 웬지 공적의 도구인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블로그는 나만의 + 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계기가 된 것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고서..바로 실행을 했는데... 얼마후부터 겨우 몇 달러지만 수익이 숫자로 보여지는 신기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오랫만에 1 학년 신입생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티스토리로 일기를 쓰고, 수익창출도 해보라면서 수업시간중에 실행하게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과정속에서 리치켓은 12년째 블로그에 일기쓰기와 자료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매달 1000-1500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달러는 환전되어서 자동으로 카카오뱅크로 들어오고 있고, 유용한 용돈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586 세대라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면성실하고, 지식과 재능도 있고, 그 동안 축적된 자료도 많고, 인적관계도 풍부한 586 세대.

그런데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재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586 세대,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기록하고 싶은 그들에게 블로그라는 간단한 실행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리치켓은 이를 “블로그 놀이” 라고 말하는데...이 놀이는.

1. 수십년 인생을 기록하고 공유 및 전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소한 용돈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주체가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을 공유하면...주변의 많은 586 세대가 나와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 및 출판, 배포를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생을 기록하는 철학적 얘기와 자신감 표출에 관한 내용은 최소화 하였다. 그런 얘기는 편안한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을 때 더 즐거울 것 같다.

따라서 본 책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한 기록방법과 수익창출 놀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파일은 pdf 전자책 형태로 무료배포하고, 특정 플랫폼에는 소액의 유료등록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료로 공유해서 친구,지인들과 함께 블로그 놀이에 도전하는 많은 586 세대가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가능하다면 종이로 인쇄해서 직접 메모하면서 읽을 것을 추천한다.

특히 단원 마지막에 파란색 박스는 꼭 작성하면서 페이지를 넘기기를 희망한다.

목차

1. WHY

2. WHEN WHERE WHAT

3. WHAT

4. WHO

5. HOW MUCH

6. HOW MUCH

7. HOW



내용의 진행은 6 하원칙을 확대한 7 하원칙을 적용함.

7 하원칙의 의미는 <http://www.yes24.com/Product/Goods/11216697> 아이디어링
핸드북 서적을 참조바람.

[1] WHY : 블로그 놀이... 왜 할까?

리치켓도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한민국 사회공동체를 지키라고 해서 충심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고, 일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해왔다. (그 모든 바탕에 게으름은 최악이라는 우리사회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 농업사회부터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도 배우고 일을 해온 슈퍼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보니 갑자기 적지 않은 나이가 된 사람이 되었고, 신세대. MZ 세대와는 조금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리되니 많은 부분에서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에 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속에서 대부분이 늘어나는 나이라는 숫자가 주는 슬픔과 고통을 말하고 싶어하고 공유하고 싶어하고 하소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읽은 책과 자료도 많고... 엄청난 경험도 해왔던 자기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딘가에 남기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나의 다양한 생각과 나의 다채로운 삶을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고,

용기내서 주변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꼰대, 라떼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고 한다.

(심지어 필자도 1998년에 처음 대학강의를 시작했을때는 나 자신이 최첨단 신세대라고 생각했었는데... 2020년 코로나 19로 온라인강의를 하면서는...나 스스로가

꼰대,라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586세대는 과거 사회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상 주력으로 남을 텐데...

웬지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엇인가에 계속 몰입하고 싶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고, 설레임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루하루가 .심심하고 싶지 않고, 외롭게 보이기도 싫고, 친구들과 만나서 구두끈을 메고 싶지도 않다.

(물론 수백억 자산이 있는 586 세대는 금전적 필요성에서 자유롭다. 구두끈 메는 척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으시라 ^^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당당하게 받으시라. ^^)

따라서

블로그 놀이를 하면...

1 : 외롭고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게 된다. 하루에 적게는 1 개, 많게는 15 개, 30 개의 블로깅을 한다면... 심심할 틈도 없게 될 것이다.

2 : 나의 삶과 생각이 기록되고 축적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서 더 사회적 연대감,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 특히 그 블로깅의 내용이 타인에게 중요한 자료나 정보나 지식일 경우엔 더더욱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댓글로 감사인사를 하는 구독자도 생기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기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킬 때 자기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3 : 소소한 용돈이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 586 세대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을 해놓고 있지만... 그래도 늘 노후자금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매달 들어오는 가처분소득이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100% 충족할 정도는 안되겠지만...블로그 놀이는 블로그 수익놀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동시에 사회적 관점에서 작지만 고령화사회의 충격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작지만 증가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전환되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치캣의 사례

- 나의 생각과 삶을 기록하려고 시작했다.
- 내가 읽은 책과 리포트등의 자료들을 기록하지 못하고 버리는게 아까워서 시작했다.
- 대학 수업에 쓸 컨텐츠로 확대강화했다.
- 이제는 26 여년간의 회사생활과 대학생활을 마치고...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용돈 만들기 놀이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새로운 자동화 수익놀이로 확장하고 있다.

나의 블로깅 목적은? 진심으로 솔직하게 쓰자.



[2] WHEN, WHERE, WHAT : 블로그 놀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할까?

블로그 놀이의 최대 장점은 시간,공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에 있다.

공부하고 일하는 집이나 사무실의 책상에서 블로그 사이트를 열고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또는 캠핑장, 바닷가, 커피숍...심지어는 전철,버스,택시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은 음성으로도 타이핑이 되기 때문에...어떤 면에서 PC 보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ubiquitous !!!

전문적인 블로거가 된다면...사무실에서 일하듯이 해야하겠으나...

리치켓은 블로그 “수익놀이”를 하는 것이지, 블로그 “수익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아무데서나 아무때나 틈날때...하고 싶을때 한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구가 조금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블로깅을 하는 도구, 수단은 크게 두가지이다.

1.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
2. 스마트폰

컴퓨터로 블로깅을 하면 편리하고 빠르다. 아직까지는 컨텐츠나 대량의 정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최적의 개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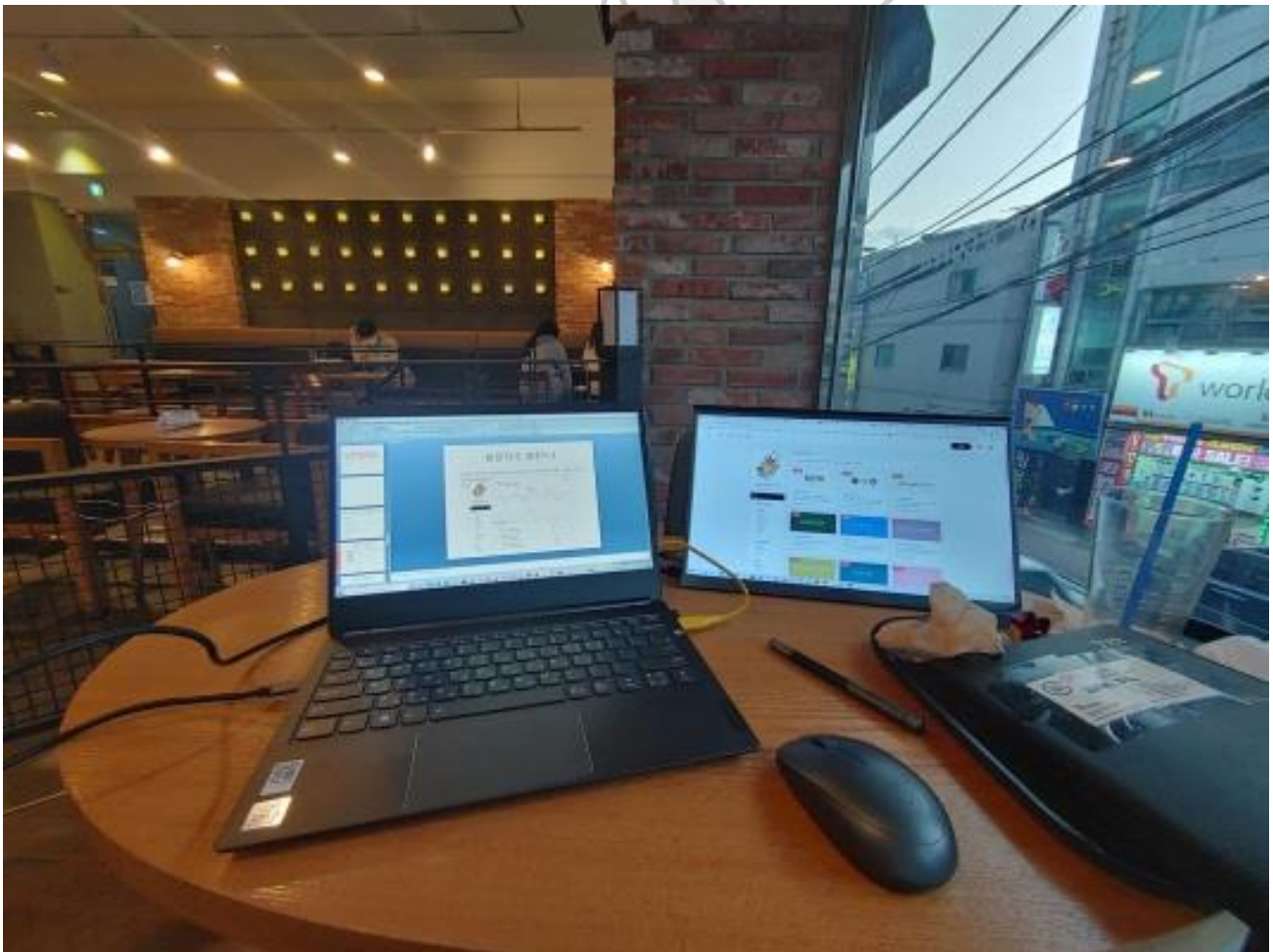
이동중이거나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앱으로 블로깅을 하는 것이 유용하거나 편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음성타이핑 기능과 즉시 촬영가능한 카메라가 장점이라 할 것이다.

각자의 블로그 스타일에 따라서 주로 활용하는 도구가 달라질 것이다.

- 리치켓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블로깅을 할까?

1. 저녁 이후 책상앞에서는 주로 노트북으로 작성한다.

2. 그 외에는 아무때나 틈틈히 한다. 주로 시간날 때 유튜브 보면서 한다.
3. 캠핑, 낚시를 좋아해서...야외에서 핫스팟 켜놓고서 작은 노트북으로 한다.
야외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블로깅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이 발달해서...요즘은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4. 사무실이나 집이 지겨울땐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음악감상하면서 연유카페라떼와 함께 블로깅하려고 모아놓은 폴더에서 자료를 블로깅한다.
(다방 아니다. 커피숍이다. ^^, 더 이상 나이들어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블로깅을 할까?



[3] WHAT : 블로그 놀이... 무엇을...어떤 콘텐츠를... 블로그 할까?

블로그할 콘텐츠는 반드시 내가 통제 및 확보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국가기밀을 블로그하면 어떨까? 유명인, 인플루언서, 인싸가 될 것이다.

감옥에서...)

그리고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타인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 탓에 비슷한 내용이 알고리즘에 나와서 연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 나의 자료, 나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수익놀이를 고려한다면...동시에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생각하라.

특히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나만 좋아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도 훌륭하다. 나만의 기록을 남기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사람들의 호응이 조만간 물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익놀이에 중점을 둔다면 인기있는 콘텐츠를 찾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다.

- 그래야 조회수,방문자, 구독자가 늘어난다. 즉 트래픽이 늘어난다.
(수익놀이의 금전적 즐거움은 트래픽에 비례한다)
- 내가 잘 아는 분야
-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아날로그 형태, 디지털 형태 모두 쓸모가 있다.)
- 내가 잘 모르는데 관심있는 분야
- 내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관심있는 분야
- 갑자기 나타난 이슈, 트렌드, 현상 들 등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안테나와 레이더를 켜놓고 있어야 한다.

리치켓의 사례

- 경영학과 군사학 (국민학교때부터 봐오던 군사학책부터, 대학교-대학원때 보던 경영학,무역학 자료들)
- 기업정보들 (리치켓의 사업이나 협력업체와의 사업중에 필요한 기업자료를

모으다보니...쓸모있을 만큼 양이 많아졌다.)

- 한국을 홍보하는 컨텐츠 (리치캣이 정말 충성을 다하는 분야. 심지어 해외에서 노래 cd 를 나눠주기도 했었다)
- 내가 읽고 침삭한 자료들 (특히 경영,경제,산업 리포트들도 있고, 사외보나 잡지들 심지어는 동네슈퍼의 전단지도 있다)
- 내가 관심있는 사업분야들 (스몰펫사업을 하면서 펫산업에 대한 자료들, 판촉물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했다)
- 해외여행중에 촬영한 사진들...(특히 실물경제분야나 삶의 모습 등...)
- 나와 관련있는 것들 (전기차-전기차충전소, 환경보호, 아이디어링, 등등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그냥 많다.)
- 나의 귀가 솔깃해지는 또는 왠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유튜브 (끈대와 라떼 라는 블로그에서 텀블로깅을 통해 유튜브에 대해 내 생각을 첨부해서 기록한다)
-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이디어링 소재 그리고 광고문자가 왔는데 재밌는 내용일 경우이거나 마케팅 사례차원에서 기록가치가 있을 경우에 기록한다.
- 등등 그러다보니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단 어느 정도 방문자,구독자가 늘어난 후에는 카테고리를 늘려도 된다고 판단함.

리치캣이 구상중인 즐거운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

- 전세계 길거리 그래피티를 촬영해서 블로깅
- 전세계 버스,트럭,택시를 촬영해서 블로깅
등을 생각중이고,,,곧 실행할 예정이다. ^&^

내가 블로깅할 콘텐츠는? 블로깅 가능할 것 같은 콘텐츠는?

1.

2.

3.

4.

5.

6.

7.

8.

9.

10.



[4] WHO : 블로그 놀이... 누가 할까?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한다.

그러나 팀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도 나름 현명하다.

단...나만의 기록을 위한 블로그라면...나 혼자 블로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팀블로그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한 목적하에 관련자들이 팀원계정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블로그의 방향성이나 운영형태는 변형과 변경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명하다.

티스토리에서는 팀블로깅을 할 대상자를 이메일을 보내서 참여시키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적용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유튜브에서 추가설명-

리치캣 사례

- 당연하게도 리치캣이 스스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버전의 블로깅을 준비중인데...이건 해외 지인, 해외 직원들과 팀블로깅을 할 생각이다.

나의 실행방안은?

[5] HOW MUCH : 블로그 놀이... 블로깅 비용은 얼마일까?

How Much 의 첫번째...얼마가 필요한데...얼마면 되는데...부분이다.

우리는 정보통신인프라 세계 1 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따라서 블로그 제작 및 블로깅 인프라는 사방에 넘쳐나며, 모두 무료이다. 심지어 와이파이가 무료이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도 무료와이파이가 되는 대한민국이다.

단, 블로깅을 하는 당신의 시간은 유료이다.

커피숍에서 블로깅을 한다면 커피값 정도는 유료이다.

앞서 말한 블로깅하는데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PC를 구입하는 비용은 유료이다.

만약 없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트북이 없거나 피쳐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새제품도 몇십만원대에 좋은 제품이 많고, 중고로 사면 몇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러리스 카메라도 몇만원이면 중고나라, 당근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니...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블로깅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면...

대한민국 586 세대중에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만 되는 피쳐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0.1% 미만일 것이며, 성능에 상관없이 노트북, PC, 디지털카메라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시간비용인데...

앞에서 말했듯이...지금 이 내용은 "업무"가 아니라 "놀이"이다.

재밌고 하고 싶을 때 하는 놀이이다. 그러니 그 시간비용이란 개념은 망각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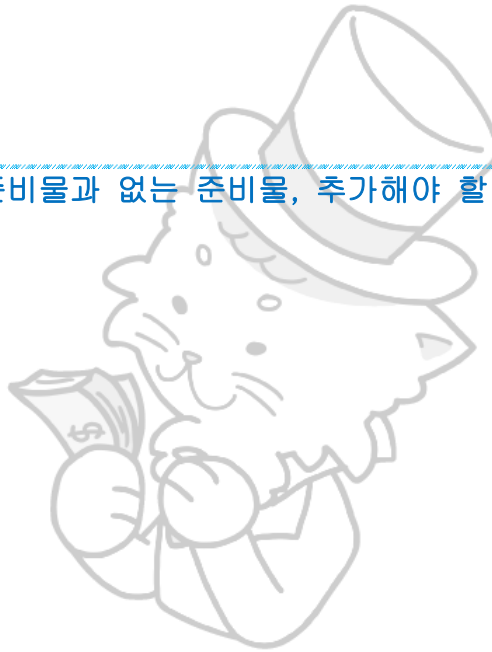
리치켓의 사례

얼리어답터에 대량장비를 추구하는 리치켓은...

여러대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다.

도리어 톰툼이 수익을 장비구입에 소모하는 버릇이 생겨서 문제이다.
그리고 즐겁고 재밌고, 호기심이 폭발하는 컨텐츠가 눈에 띄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블로깅을 하기에,
즉 철저하게 놀이라고 생각하기에 비용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 기업정보 등은 저녁늦게 집에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기에...가끔은
업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bb

나의 준비물은? 있는 준비물과 없는 준비물, 추가해야 할 준비물?



[6] HOW MUCH : 블로그 놀이... 블로깅 수익은 얼마일까?

How Much 의 두번째...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데...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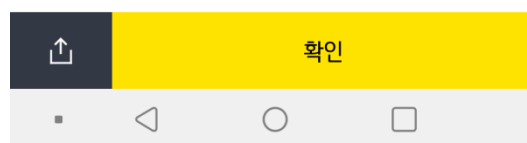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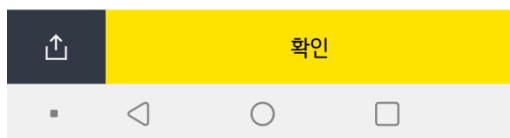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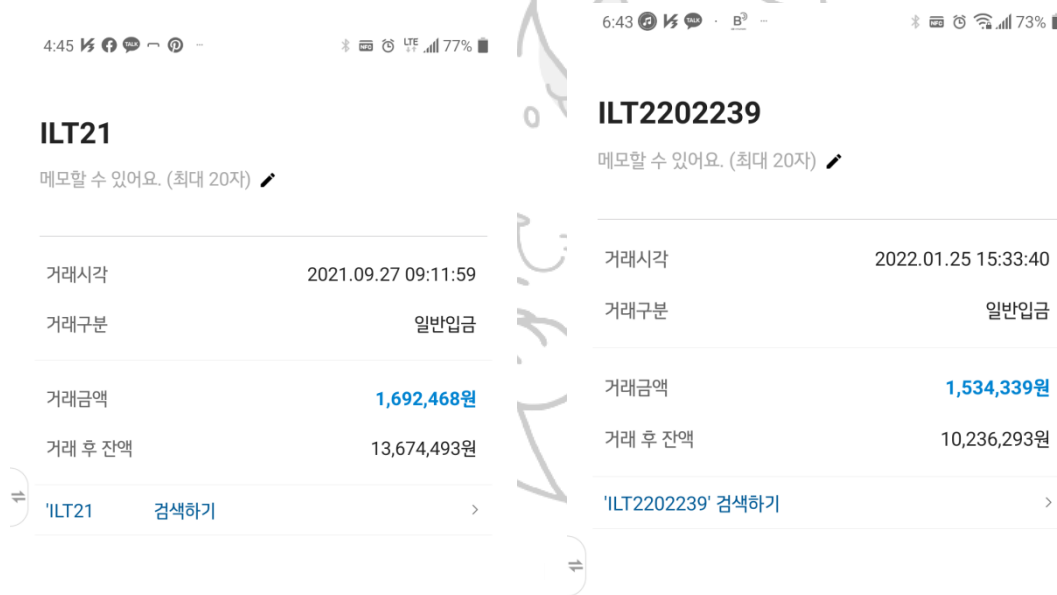
대부분의 블로거는 수익이 없다. 유튜버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리치켓이 생각하기엔 꾸준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본다.

꾸준함을 통해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는데...대부분은 어느 정도 하다가...안되는구만.

이라고 자기자신을 변호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리치켓의 2021 년 9 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1,468 us\$ 이다. 한국 원화로 수수료 떼고 1,692,468 원이 입금되었다.



매월 들어오는 1000~1500 달러의 수익은 즐거운 꾸준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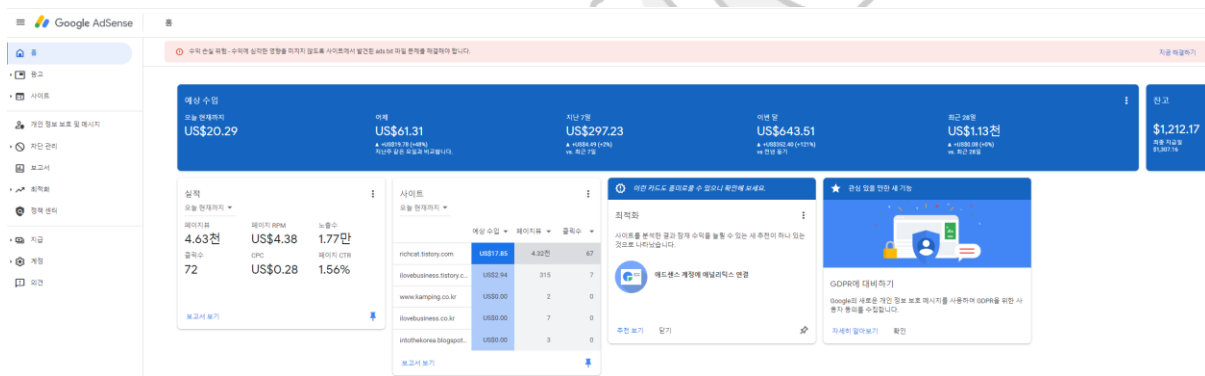
- 구글애드센스로부터의 입금은 카카오뱅크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

- 일반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쉽다. (농협은행이 건당 수수료가 1 만원인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5 천원이다.)
- 상세한 방법은 HOW 파트 참조

2022 년 1 월엔 1307 달러로 153 만원이 입금되었다.(위 그림 참조)

후술 하겠지만...카카오에게 계정정지를 당하면서 2021 년 11-12 월은 다소 감소한 상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책의 뒷부분 주의사항 편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익은 언제든지 PC 나 스마트폰으로 구글애드센스 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사실대로 캡처해서 붙인 것처럼 현재 1000-1500 달러정도의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종종 관련된 유튜버나 책에서 월 7 천달러를 2 만달러를 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아웃라이어다.

리치켓은 그런 재주는 없는 듯하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고, 그리고 기록해서 남기고 싶은 콘텐츠를 꾸준히 작성하고 기록을 남길 뿐이다.

추가적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애드핏 이라는 광고수익모델이 있는데...구글애드센스에 비해서 작은 수익이 들어오지만, 국산 광고플랫폼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2 개월마다 5-6 만원이 들어오므로...월 3 만원 수준의 광고수익을 지급해준다.

구글애드센스의 1/50 수준이다.

큰 기대는 하지말고...티스토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고플랫폼이니 붙여주는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7:18

70%

(주)카카오

메모할 수 있어요. (최대 2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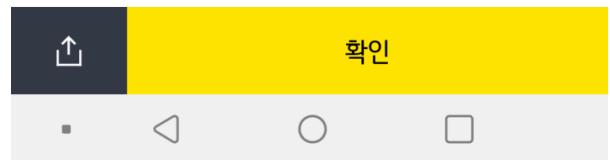
거래시각 2022.01.20 14:16:43

거래구분 일반입금

거래금액 **59,590원**

거래 후 잔액 10,016,614원

'(주)카카오' 검색하기 >



내가 생각하는 수익은?

586 세대들이여...욕심내지 말자. 그저 용돈을 목표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우선으로...

[7] HOW : 블로그 놀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씩 순서에 따라하면 블로그 놀이 실행준비가 끝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급하게 블로그 개설부터 하고서, 그 다음에 이름을 고민하거나, 블로그의 방향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말에 훌륭한 목수는 “두번 측정하고 한번 톱질한다”는 말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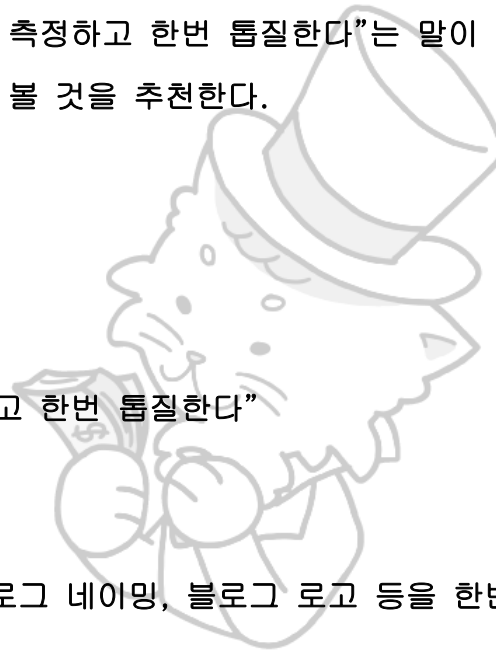
이 글의 순서에 따라 실행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잊지말기를...

훌륭한 목수는 “두번 측정하고 한번 톱질한다”

586 세대일수록...

앞부분에 블로그 방향성, 블로그 네이밍, 블로그 로고 등을 한번 더 뒤돌아보고 진행하시라.



1 단계 :

General Direction(일반방향) 을 정한다.

GD는 군사용어이다. 대규모 부대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제시하는 것인데..이게 명확해야 전략적 기동(maneuver)이 가능하다. 블로그도 동일하다.

- a. 블로그의 일반방향을 정하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략적이라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b. 왜냐하면...블로그는 꾸준히 하는 것이고, 꾸준하려면 방향성이 필요하다.
- c. 방향성이 없다면...잡다한 내용만 쌓이면서 구독자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흥미를 잃을 것이다.
- d. 꾸준함을 잃는다면... 잠깐의 재미와 자기만족은 보장되지만, 수익모델은 불가능하다.
- e. 내가 어떤 블로그를 쓸지를 반드시 리스트업 해보라.
- f. 수첩에 적어보아도 좋고, 마인드맵 같은 프로그램에 적어봐도 좋다. 무조건 생각하고, 기록하시라. 그리고 판단하면 된다.

나는 어떤 블로그를 만들면 좋을까?

2 단계 :

블로그 네이밍을 기획한다

-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네이밍이다.
- 대충 자기 영문이름의 약자를 합쳐서 우선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애매해하는 경우를 종종 있다. 이런 방식은 현명하지 않다. 훌륭한 목수는 두번 측정하고 한번 톱질한다고 하듯이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네이밍을 한번 더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
- 자신의 이름이 블랙핑크 LISA 나 ROSE 정도 또는 에스파의 카리나,윈터 정도 되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와 인지 그리고 재인지를 고려해서 네이밍하는 것이 현명하다.
- 다시 반복하지만...네이밍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다시 떠오르기 쉽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드는 게 현명하다.

우선 네이밍 후보안을 몇 개 적어보자.

- 블로그 네이밍은 앞에 말한 General Direction 을 고려하여
- 일반명사, 일반명사의 조합, 일반명사의 변형을 사용하거나...
- 형용사,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 등을 사용하거나
- 동사, 동사와 부사의 조합 또는 동사와 명사의 조합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시도해보자.

1 차로 무작정 문득, 떠오른 블로그 이름을 물 흐르듯이 적어본다.

물 흐르듯이 작성한 블로그 이름들을 보면서
아래 도표에 편안하게 한글네이밍부터 영어표기까지를 적어본다.
어차피 영어로 표기될텐데 왜 한글을 작성하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지만...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작성된 블로그를 홍보할때는 한글로 검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RICHCAT'을 '리치캣'이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해둔다.
한글네이밍 후, 그 네이밍의 의미나 의도를 적어본다. 그래야 블로그의 방향성도
확실해지고, 설사 개인의 일기장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보다 의미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네이밍을 영어로 표기한다. 이후 미리 선정된 단어일 경우 약간의
변형이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No	한글 네이밍 표기	네이밍의 의미,의도	영어 표기
1			
2			
3			
4			
5			

1 개에서 5 개의 스스로 새롭게 작성한 블로그 네이밍 아이디어를 하나씩 보면서 아래에 있는 SMILE test 기준으로 검토를 하라.

검토하다 보면, 보다 개선되고 확장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도 있다.

S	Simple 간단한 이름, 쉬운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이름, 최소한 복잡하지 않은 이름 ● 이해하기 쉬운 이름
M	Meaningful 의미가 함축된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거의 존재감이나 블로그의 방향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름 ● 함축된 의미가 유추되거나 확대해석되는 이름
I	Imagery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을 자극하는 브랜드 네이밍 ● 네이밍 된 브랜드만으로도 블로그의 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이름. ●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 그리고 공감각이 가동되는 이름 ● 단, 너무 복잡하면 어려울 수 있음
L	Legs 여운을 주는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운이 남는 이름, 고객이 유추,발상하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름 ●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하는 효과가 있는 이름. ● 특히 부주제의 슬로건을 적용할때 효과적임
E	Emotional 감성을 자극하는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말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감은 감성의 기초임. 특히 2 개이상이 결합된 공감각을 창출하는 블로그 이름. ● 이성과 반대되는 감성을 느끼게 하는 이름

SMILE test 를 통해서 수정보완된 블로그 이름을 다시한번 스크래치 테스트를 통해 점검해보라.

S	Spelling-Challenged 철자가 틀린 이름	어려운 철자나 틀린 철자를 쓰면 안된다. 신뢰도가 하락 →틀린 브랜드로 성공한 기업들도 있음. FCUK 등
C	Copypcat 식상한 카피로 만든 이름	다른 회사나 상품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된다. →법적 충돌만 없다면, 초기 홍보와 확산에 긍정적임. →산업군,상품군이 다르다면 카피켓은 상당한 장점이 존재 →리치독, 리치카우, 리치마우스...
R	Random 마구잡이로 만든 이름	무의미한 마구잡이식 네이밍은 고객접점을 만들기 어렵다 →블로그의 방향성과 무관하지만...그 단어자체가 특별한 브랜드가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함. ex) FCUK 도리어 유명해질 경우, 구독자가 그 뜻을 풀어내려는 노력도 함
A	Annoying 듣기에 불편한 이름	듣거나 말하기에 불편한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블로그에서는 무관함. 킬링필드를 쓰고서 전쟁과 생존에 대한 전문블로그를 쓴다면 부정적이기만 할까?
T	Tame 밋밋한 이름	밋밋한 이름은 피하라. →일반명사가 검색은 잘된다. 단 상위노출은 어렵다. 그래도 상위노출이 자신있으면 밋밋한 네이밍에 도전해보라.
C	Curse of Knowledge 전문지식 기반의 어려운 이름	전문분야나 전문용어에 기초한 네이밍은 피해야 한다. →블로깅에선 전문분야만을 블로깅할 때, 충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H	Hard to Pronounce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 네이밍은 피해야 한다. →발음하기 어렵지만 시각적으로 직관적이라면...도리어 노이즈마케팅이 가능하다.

3 단계 :

블로그 이름을 완성한다.

검토를 마쳤다면...최종 블로그 네이밍을 결정하라

최종 블로그 네이밍 :

- 네이밍 과정을 통해 여러 개의 블로그 이름을 만들어 보고
- 네이밍한 이름이 각각의 블로그에서 사용가능한, 즉 선정되지 않은 네이밍인지 확인한다.
- 가능하다면...네이밍을 하면서 동시에...사용가능한 이름인지 체크하면서 진행하라. 열심히 네이밍해서 자기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던 마음이...멘탈붕괴에 빠질 수 있다.

리치캣의 사례

- 아이러브비즈니스 라는 사이트를 기획제작중에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브비즈니스로 네이밍하기보다는 캐릭터 형태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때
- 비즈니스의 목적은 부의 창출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지만...)라는 단순한 생각하에
- 부에서 리치라는 단어를 추출하고
- 캐릭터를 고려하다보니...사람보다는 동물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를 구상하다가
- 캣은...강아지를 좋아해서 독이라고 하려다가...리치독이 발음과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고양이털 알려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캣을 선택했다.

- 두개의 명사를 조합해서 리치캣 Rich Cat. 부자고양이.
- 그리고 고양이가 새초롬한 면이 있는 동물이라...부자라는 단어와도 조금 와 닿는다고 생각했다.
- 그런 결과로 나온 브랜드 결과물이 '리치캣'이다
-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리치캣' 이나 'richcat'을 검색해보시라. 최상단에서 만날 수 있다.

최종적인 나의 블로그 이름. 한글표기+영어표기는?



4 단계 :

블로그 로고를 만든다.

블로그 로고 만들기

- 우선은 블로그를 얼굴인 로고를 만들어야 한다.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만들수 있다. 또는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만들어도 된다.
-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그리거나, 가족이나 지인중에 재주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된다.
- 고품질 로고를 원한다면, 약간의 비용으로 제작해도 된다.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다.
- 그림판, 포토스케이프, 포토샵을 사용해도 되고, 미리캔버스나 캔바를 이용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하다.
 - <https://www.miricanvas.com/>
 - <https://www.canva.com/>



위의 이미지 제작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거나,

스노우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 시켜서 사용해도 된다.

리치캣은 미리캔버스를 추천한다.

웹사이트를 보면...텍스트로 보이는 사이트 주소뿐 아니라 개성있는 아이콘이 나타나는 경우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콘은 JPG 파일이 아니라 확장자 ICO 파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이것이 있고 없과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매우 크다.

따라서 블로거는 꼭 만들것을 제안한다.

- 블로그 아이콘 만들기

- 로고를 아이콘 확장자로 변형하면 된다. DOS 에서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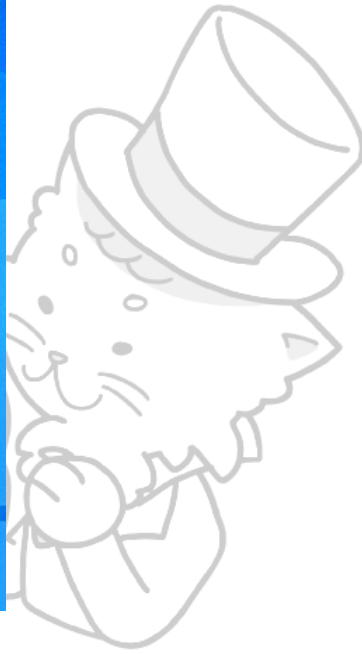
- 이 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올리고서 ico 로 변형한 후, 그 파일을 해당공간에 올리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개성있는 로고로 표현되어 노출이 강화된다.

- <https://icoconvert.com/>

- 웹사이트 접속
- 이미지 파일 업로드
- 이미지 자르기 (옵션)
- 스타일 적용 (옵션)
- 아이콘 형식 선택 (사이즈)
- 아이콘 변환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폴더에 만들어진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하면 PC 의 바탕화면이나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차별화된 나만의 블로그 아이콘이 나타난다.





5 단계 :

블로그 개설

1. 블로그 플랫폼의 특징

1. 티스토리 : 외부광고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오픈블로그

1. 다음이나 카카오를 통한 검색량에서는 네이버에 많이 밀리는 편이지만, 구글광고, 애드핏광고, 데이블광고 등 외부광고를 마음대로 설치하고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2. 외부광고 부착을 클릭 몇번으로 가능하게 지원한다. 가장 수익목적 블로거에게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3. 단, 갑작스런 이용제한을 하는 등의 운영제한이 있다.

2. 네이버 : 부분적인 광고수익기능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블로그

1. 대한민국에선 70%이상의 검색유입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비교우위 역량 발휘
2. 인지도, 대외 영향력 확대에 강점이 있고, 블로거 활동을 통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강점이 있다.
3. 단, 구글애드센스 등 외부광고엔 제한이 있다.

3. 구글 : blogspot.com.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용되지도 않는 플랫폼

1. 그러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버전의 블로깅을 할 경우엔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4. 자체 제작 웹사이트 :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단 비용이 여러가지 발생

1. UI, UX 부터 외부광고는 물론 배너광고, 팝업광고까지도 마음대로 제작가능

2. 단, 전체적인 제작개념과 기획능력이 필요하고 운영관리역량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3. 그러나 플랫폼의 제한등이 없어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만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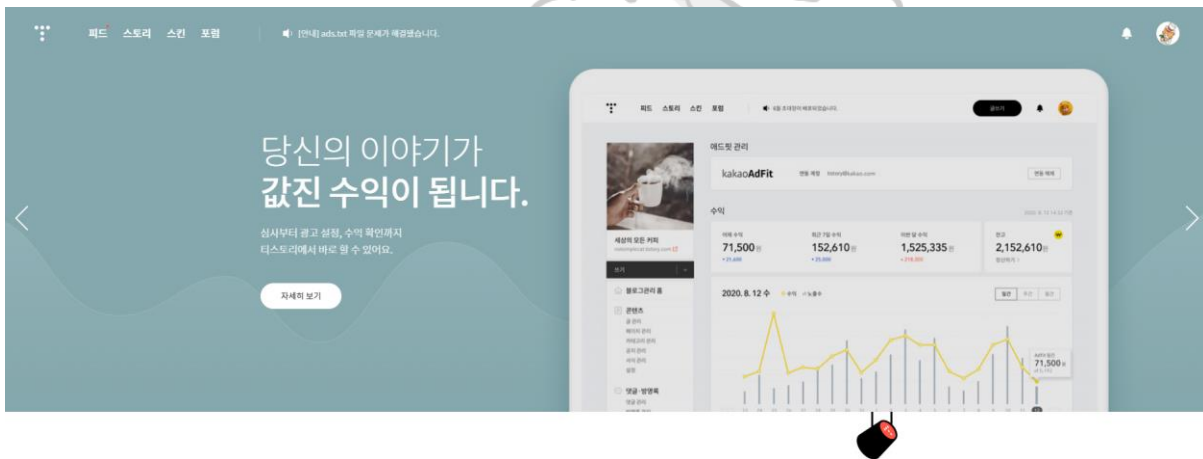


6 단계 :

블로그 개설

1.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다

- <https://www.tistory.com/>
- 회원가입하면 끝. 단 앞에 준비한 가치있는 블로그 이름, 블로그 로고 등을 미리 준비해서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리치켓이 가장 애용하는 블로깅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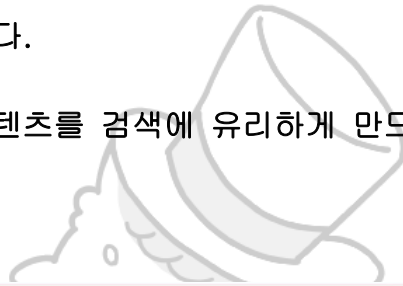


이 놀라운 사이트들이
모두 多 티스토리라는 사실

이 책에서는 “티스토리”를 모델로 블로그 개설을 진행한다.

2.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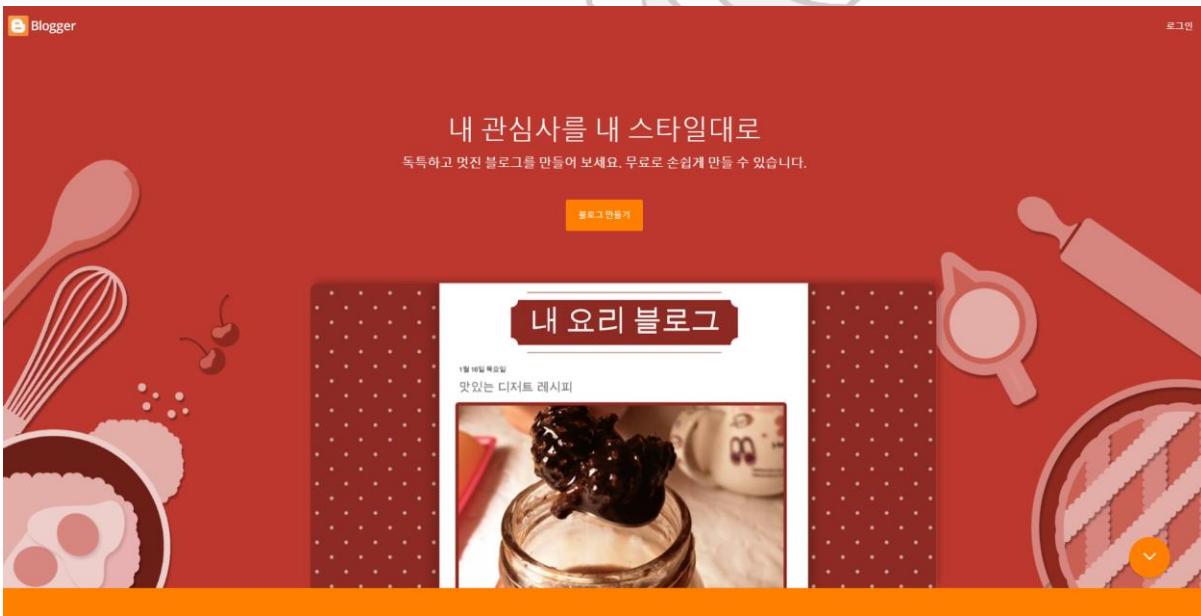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순서에 따라 회원가입하면 끝.
- 티스토리도 블로그고, 네이버블로그이지만, 자동화된 광고수익은 티스토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 리치켓은 티스토리를 운영한다.
- 네이버블로그는 티스토리 콘텐츠를 검색에 유리하게 만드는데 활용한다.



3. 구글 블로그를 개설한다

1. Blogger.com - 독특하고 멋진 블로그를 만들어 보세요. 무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당연히... 구글계정 기반으로 만들게 된다.
- 콘텐츠 작성에 있어서 이미지관리등이 조금 어려운 구조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영어를 사용하는 블로깅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병행해서 만들 필요는 있는 플랫폼이다.



4. 직접 웹사이트를 만든다

- 워드프레스, 그누보드, 카페 24, 워스 등등 웹사이트 제작플랫폼은 넘쳐난다.
- 단 이 책에서는 '블로그 수익업무'가 아닌, '블로그 수익놀이'를 추구하므로 이 내용은 다른 자리를 통해 설명하겠다.
- 참고로 리치캣도 이런 독립적 플랫폼을 만든 것이 있는데...생각보다 신경도 쓰이고 에너지소모도 크다.
- 제작사례
 - Kamping.co.kr
 - WWW.ILOVEBUSINESS.CO.KR
 - Monsterfis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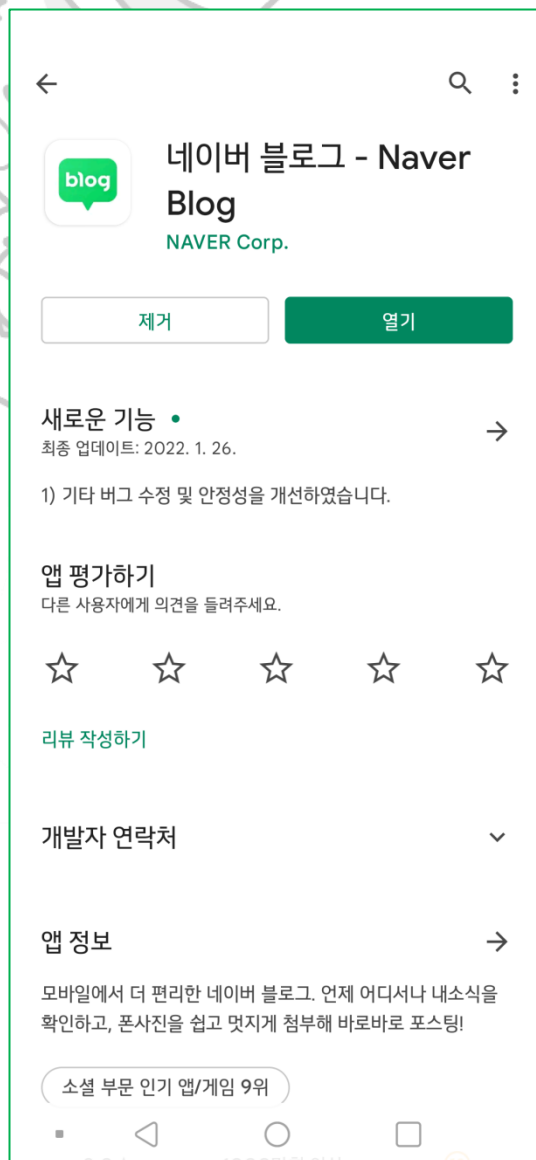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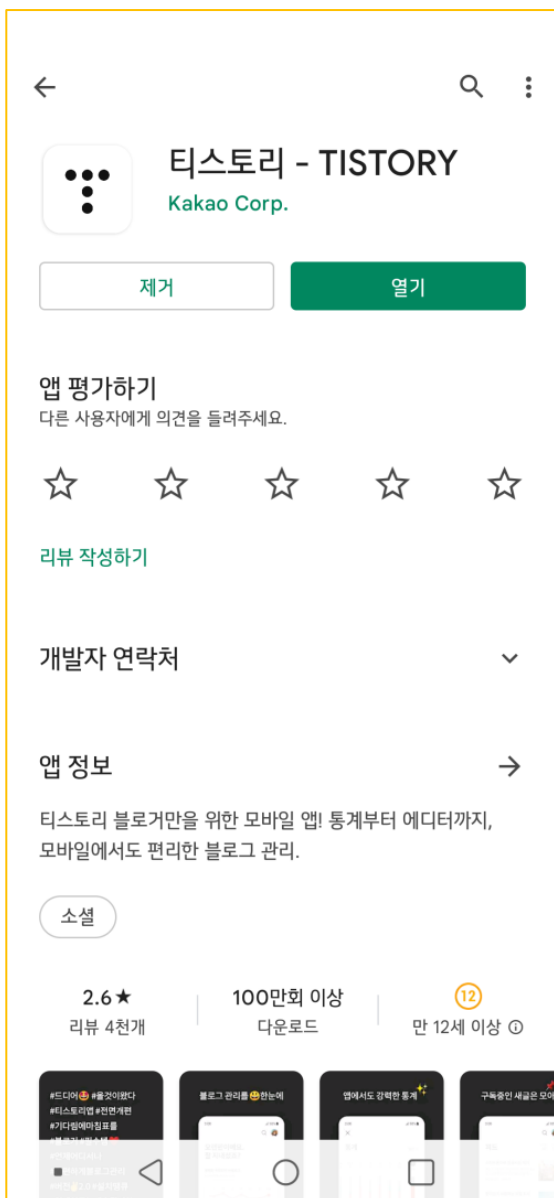
7 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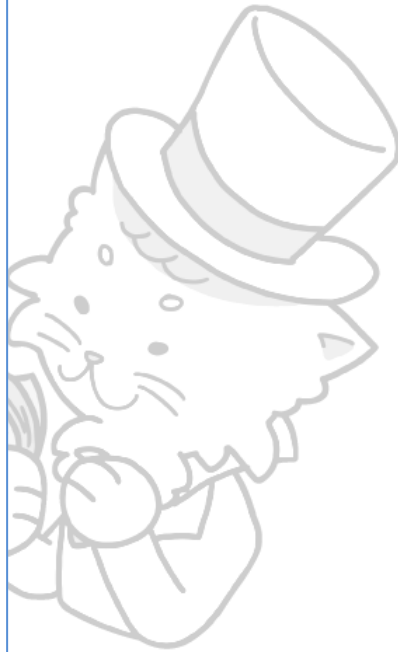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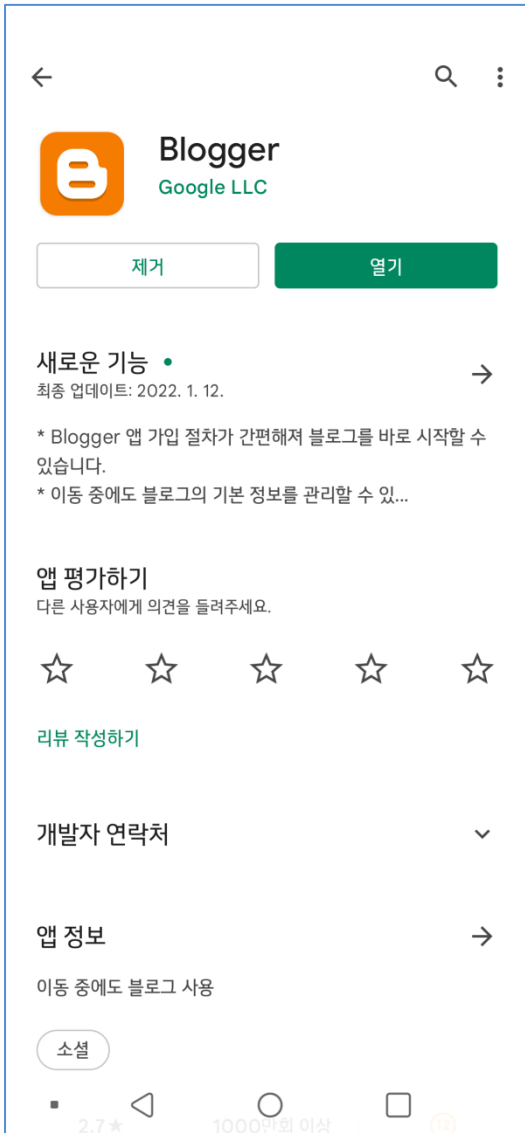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앱의 활용

PC의 시대를 넘어 모바일의 시대인 지금, 당연하게도 블로깅을 쉽게 작성하게 구성된 모바일앱이 있다.

음성 타이핑, 사진 및 영상제작의 편리 등 모바일앱만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100%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앱스토어에서 각각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로그인한다.





8 단계 :

관리자 화면에서 블로그 초기세팅하기 : 티스토리 블로그관리홈

지금부터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기반으로 관리자화면의 초기세팅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된다.

블로그 고도화가 아닌, 초보자가 처음 셋팅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고 기본적인 작업만 하면 충분하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따라하기 쉬우므로 영상에서 설명.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IE2KBLKnVkM>

유튜브 검색창에 “리치캣 TV”

→ 리치캣의 "블로그 놀이" 39p 설명영상입니다.

9 단계 :

글쓰기

1.

티스토리 규정이 변경되어서...이제는 하루에 15 개의 블로깅이 가능하다.(전에는 30 개)

하루에 15 개씩 글을 쓴다.

586 세대의 근면성실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2.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의 블로그를 쓸지는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그 방향성,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는 것이 블로그라는 마라톤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금씩 유사한 카테고리를 늘리거나 새로운 블로깅의 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한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방문자와 구독자를 늘리는데 유리하다.

3.

통상적으로는 블로그를 켜고서 글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장문의 글을 쓸 경우에는 워드,아래한글 등의 워드프로세스에 글을 써놓고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더 편리하다.

4.

리치캣은 다양한 사외보나 지자체들이 발간하는 잡지들을 보면서 낙서하고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스캔은 스캐너를 이용하면 되지만, 많은 양의 텍스트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때 매우 유용한 도구가 있어서 첨부한다.

이미지 무료 ocr 프로그램 사이트

- <https://www.prepostseo.com/ko/image-to-text>

이 사이트에 가서,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면...잠시후 자동으로 OCR 즉 텍스트화된 문서로 변형해주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된다. 물론 약간의 오타도 있으니 등록전에 검토를 해야하지만...일일이 수백,수천자의 글을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5.

통계치등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넣으려면, 통상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생각하지만, 한컴의 오피스한셀이 편리하다.

사용해보면 바로 알겠지만, 엑셀에서 블로그페이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대부분 깨져서 보이거나 페이지 공간을 이탈해서 표시된다.

반면에 오피스한셀로 처리하면 깔끔하게 블로그에 표시가 된다.

꼭 한국것만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할때는 엑셀보다 한셀이 수월하다.

6.

꾸준히 블로깅 하기. 작심삼일 절대불가~!!!

통상 200 개 이상의 콘텐츠와 그에 비례하는 방문자수가 있어야 구글에서도 광고승인을 해주고, 카카오 애드핏도 광고승인을 해준다.

추가적으로 200 개 콘텐츠 이상 충분히 블로그 놀이를 한 분은 '리치캣'에게 블로그 주소를 메일로 알려준다면, (richcat@kakao.com)

리치캣 블로그에 리스팅해서...직접 및 간접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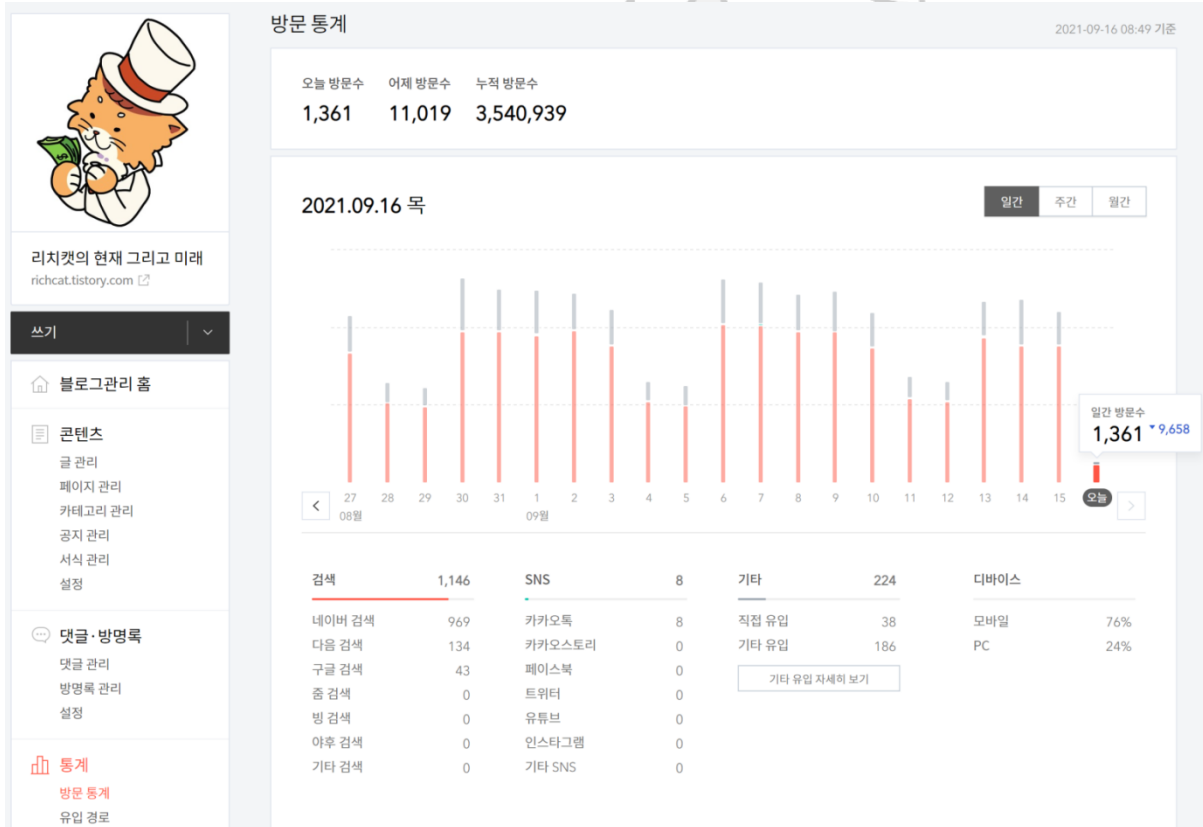


10 단계 :

통계 확인하기

방문자 수 패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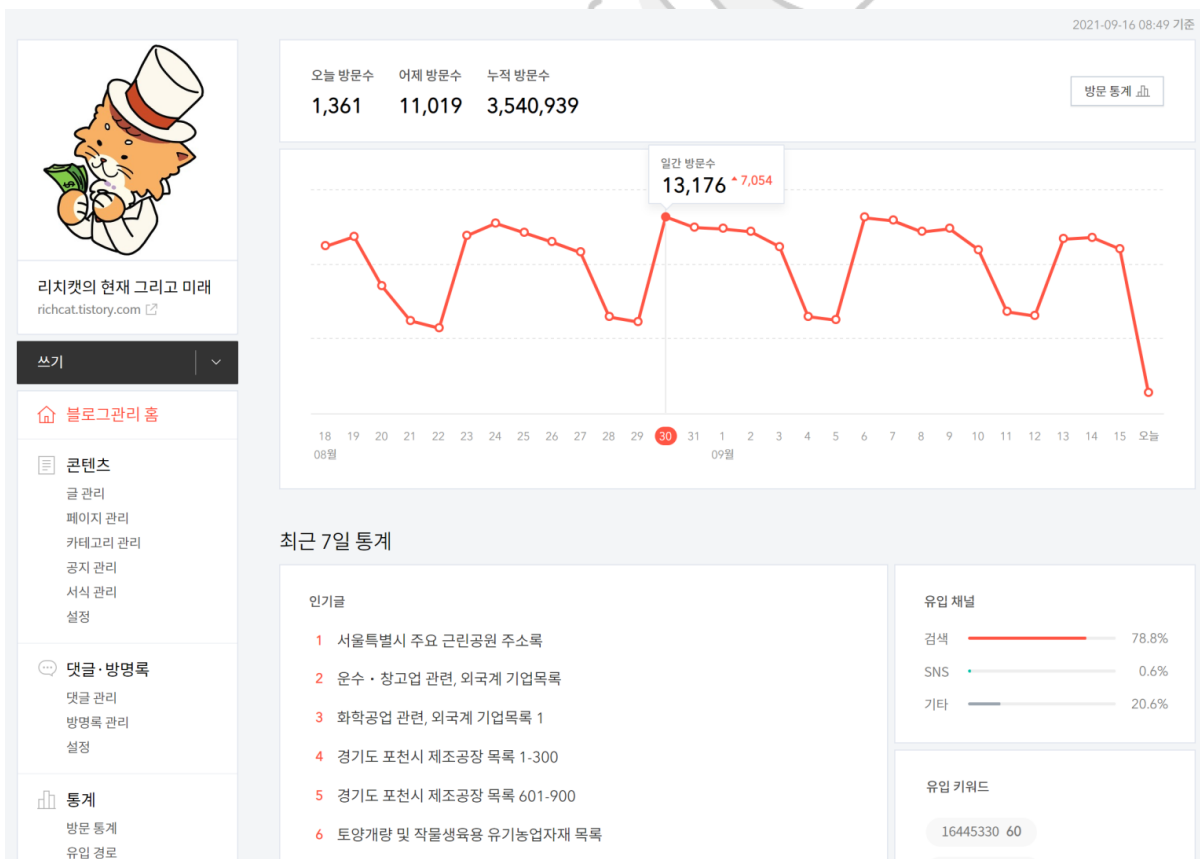
- 리치캣은 경영학과 기업,산업관련 블로깅이 많다보니...주중에 방문자가 많고, 주중에는 절반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 따라서 광고수익도 통상적으로 주중에 더 많은 금액이 축적된다.



일주일 단위로 통계를 보면 더 정확한 패턴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주말에 많이 노출되는 컨텐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공원이나 놀이터 주소등을 올려봤지만... 그 효과가 주중에 기업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첫부분에 강조했듯이...블로그의 General Direction. 즉 초기 방향을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링과 고민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우연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으나...이는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 그대로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 단계

광고 연동하기 : 구글 애드센스, 카카오 애드핏

구글 애드센스 연동하기

리치켓이 여러 블로그중에서도 티스토리를 586 세대에게 추천하는 이유중 하나가, 티스토리가 광고연동이 클릭 몇번으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간편한 심사 및 수익 지급 ✓ 타게팅된 광고로 수익 극대화 ✓ 수익 관련 정보 카카오톡 알림 설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s.txt 파일 문제 해결 ✓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광고 게재 ✓ 코드 하나로 설정되는 자동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화 추천을 통한 트래픽 및 주목도 상승 ✓ 블로그에 딱 맞는 알고리즘 및 디자인 지원을 통한 수익 극대화 ✓ 효과적이고, 강력한 테스트 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문 타입의 콘텐츠 ✓ 자유자재로 붙일 수 있는 '소문박스' 기능 ✓ 수익 및 효율 정보를 앱·웹으로 확인 가능

“연동하기”를 클릭해서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AdSens 로그인 → 연동 완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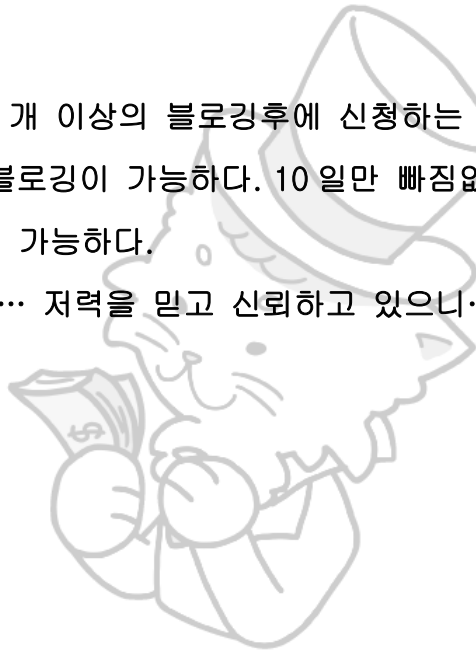


1. 애드센스를 연동하는 것은 'AdSense for TISTORY'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2.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3. 심사 및 진행 상황은 구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순서이지만, 구글계정이 없으면 새로 개설한 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부분이 구글 이메일 계정에서 확인과 진행이 되니, PC 나 스마트폰에 구글 이메일을
열어놓고 작업하면 수월하다.

위의 핵심플랫폼외에 데이블 등도 기타 플랫폼도 있으나, 리치켓이 테스트해 본 결과
컨텐츠 페이지만 지저분해질뿐 카카오 애드핏 수준이므로, 깔끔하게 상위 2 가지만
부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200 개 이상의 블로킹후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티스토리는 하루에 15 개의 블로킹이 가능하다. 10 일만 빠짐없이 하면 150 개, 20 일만
꾸준히 하면 300 개 블로킹이 가능하다.
은근과 끈기의 586 아니던가... 저력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끝까지 도전해보는 것을
희망한다.



마치는 글

- 은퇴하는 교수들의 책들을 모아놓으면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란 사업아이디어를 낸 적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실행을 접었다. (잉여 부동산이 많은 분이 관심이 있다면...연락할 경우, 함께 아이디어링 할 용의가 있다. ^^)
- 마찬가지로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586 세대의 생각과 자료들은 우리사회의 분명한 사회적 자산이다.
- 나는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모아서 공유해 봤는데..그게 작은 수익모델(용돈)이 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용돈벌이 모델관점에서는 20 대의 젊은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리치캣은 586 세대의 참여와 실행을 강조하고 싶다.

586 세대는 대한민국의 근대화,현대화를 이끌어낸 사회중추세력이다.

인구구조상 지금도 그러하고 당분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586 세대가 수십년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적한 자료,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무수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콘텐츠라 축약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있는 콘텐츠들이 기록되지 않고 소멸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는 책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미미하다.

다시금 마치는 글에서 강조하지만...586 세대의 자료,지식,깨달음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타인과 다음세대에게 전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나서 이제는 마래 세대가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하게 자리를 내어주는 실천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편리하고 수월한 것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586 세대가 블로그 놀이라는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욕심내지 않고,

'즐거움을 배가하는 꾸준한 습관의 한가지'로서 '자기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를 바란다.

586 세대를 위한 블로그의 사회적가치 강조 :

1. 586 세대의 블로깅은 개인차원에서 자기자신의 즐거운 시간활용 그리고 소소한 수익모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2. 자신의 지식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한다는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일정수준의 이상의 지식활동, 지적수준을 보유한 분들일 것이다.
4. 최소한 문맹도 아닐 것이며, 컴맹도 아닐 것이며, 폰맹도 아닐 것이다.
5. 특히 '내 나이가 어때서?' 라면서...자기자신의 생물학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분일 것이다.
6. 그렇다면 최근 N 잡러시대에 부응하는 '수익놀이'와 함께... '자료와 지식의 미래전달'이라는 부가가치에 586 세대의 끈기와 꾸준함 그리고 영민함을 지속해보면 어떨까...라고 리치켓이 제안한다.
7. 나만의 고유한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학교 선생님, 대학교수,강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8. 누구나 먼저 살았기에 先生이 될 수 있는 것이다.
9. 특히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지식을 근거로 타인과 미래세대에게 근거있고 예의있는 설명을 한다면...첫마디에 '꼰대'라는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 10.586 세대가 충분한 지식의 정리와 고찰을 하고 있다면, '라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11.꼰대와 라때 라는 반응이 '선생'이란 호칭, 더 친해지면 '쌤'이란 친근한 호칭으로 변화될 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세대간 충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끝.

리치캣 소개

모재성 (dr.PLAY)

richcat@kakao.com

관련 사이트

<https://richcat.tistory.com/>

<https://prqueen.co.kr/>

<http://ilovebusiness.co.kr/>



강의요청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

- 블로그 놀이 개론
- 블로그의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
- 블로그 콘텐츠 찾기놀이 아이디어링

*유료버전은 '크몽' 플랫폼에서 2022년 3월부터 판매

*유료버전 추가내용

-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시 주의사항
- '리치캣 티스토리'의 콘텐츠 분야별 통계
- 블로그 노출 강화하는 단순한 방법
- 블로그 수익모델 추가하는 단순한 방법

즐거운 기록놀이, 블로깅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